

승가망신

며칠전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이었다. 비를 맞고 시내 식당에 저녁 공양을 하러갔는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식당 주인이 공손히 합장 인사를 하고는 "스님은 종회의원 아니시지요?"하는 순간 마음이 찰싹 내려앉았다. 8월13일 TV 뉴스와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승려들의 도박사건은 수행승단에 오물을 끼얹은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 나는 승단의 한 사람으로서 식당주인에게 합장을 들지 못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며 사죄만을 드릴 뿐이었다.

도(不偷盜)에 해당된다.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계를 존중하기를 어름 속에서 빛을 만난 듯이,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듯이 해야한다.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이요, 내가 세상에 살아 있더라도 이것과 더불어 없을 것이다"하시었으니,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는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며, 도독질 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불이 가득 차기를 바라 는 것 같고, 거짓말 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풍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마군의 길을 이룰 뿐이다. 만약 계행이 없으면 비루결린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한다 했는 데, 하물며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바랄 수 있겠는가. 계를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한다면 부처님 이 계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계율이 수행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도박사건 기집 말실에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혐오의 마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조계종 개혁의 함성이 엇그제 같은데, 아직 개혁 1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것에 대해 종단과 종회, 주지, 소임자 등 승단의 모든 구성원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도박에는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재산이 날로 줄어들고 도박에 이기더라도 원하는 생각이, 지혜로운 사람이 타일라도 들지 않고 사람들이 이를 멀리하며, 도독질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육방예경>의 가르침처럼 도박은 근본 10계의 두 번째인 불투

무욕을 생명으로 어두운곳 밝혀야할 출가 수행자들이 상습도박을 하다니

은 적발되어 구속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사 액수가 적거나 장난으로 해보는 회원들이라 하더라도 활나의 정진과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얼마인데 실심풀이 도박을 하는 스님들의 행위에 철퇴를 내리지 않을 화엄신장이 과연 있겠는가. 승단 전체가 이번의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거룩한 계율정신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계율로 삼아야 한다. 서산대사의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곧 부끄러워해야 대장부의 기상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명심하여 오늘의 출가 수행자들은 간절한 참회로 거듭나는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식량부족

수해로 쌀 수확량 작년의 80% 음식물 남기지 않기 생활화

한국 식량자급률 27%...세계 기상이변 식량수급 차질

경기지역과 영서·충청지역에 내린 폭우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백만섬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대홍수 등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부족사태가 초래될 경우 내년 이후 국내 식량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호밀과 음식집에서는 여전히 음식을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옛날 '보릿고개'를 넘던 '헝그리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곡 6백만 가운데 쌀이 5백30만 t(88%)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따라서 쌀부족 사태는 물가 불안과 경제위기, 사회불안을 거쳐 결국 국가위기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시점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절약정신은 필수적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음식물 소비는 다소 줄었지만 대중 음식점 등의 음식을 쓰레기는 여전히 많다. 음식 가격을 내리는 대신 식탁에 오르는 양은 오히려 늘리는 등 저가공세로 손해를 입고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의 공양은 배를 채우고 맛을 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보와 사중(四重: 국가 부모 스승 시주)의 은혜를 갖고 삼도(三途: 지옥 아귀 축생) 중생의 고통을 건지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 이처럼 국민들의 절식(節食)이 일반화될 때 정부가 추진하는 수



◇13일 폭우로 물에 잠긴 경북 상주시 공평면 들녘. 벼 한 포기라도 더 일으켜 세우려는 농심(農心)이 안스럽다.

불교의 눈 "발우공양정신 절실한 때"

<대살차니간자소설경>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 가뭄, 폭풍, 비 등 기상상황을 알고 농사의 작황을 살펴 풍작을 위한 대책과 백성의 안락과 슬픔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했다면 폭우로 인해 많은 농경지와 재산을 잃는 일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화엄경>에서 옛날 대광왕(大光王)이란 임금은 "가난한 백성이 물려오면 창고를 열어 원하는 것을 내주고, 그 기회에 사악한 마음과 탐욕을 떨쳐 버리는 지혜를 가르친다"고 했다. 정부차원에서 풍작이 들 때 곡식을 넉넉히 쌓아둘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

마주경>의 "음식은 죽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는 가르침대로 발우공양의 절약정신을 온 국민이 실천해야 한다. "가난한 백성이 물려오면 창고를 열어 원하는 것을 내주고, 그 기회에 사악한 마음과 탐욕을 떨쳐 버리는 지혜를 가르친다"고 했다. 정부차원에서 풍작이 들 때 곡식을 넉넉히 쌓아둘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

세계 첫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에 14일 개관된 세계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내부 전시실. 역사관은 각 60평 40평 규모의 2개동으로 구성되어 위안부 역사를 재현한 '체원의 정' 스타디움터리를 상영하는 '중원의 정' 관련 문서와 영상 자료를 전시한 '기록의 정' △미술작품을 전시한 '고발의 정' △피해자 위령탑과 헌화소가 있는 '추모의 정' △연구자료실을 갖추고 있다.

"일본군 위안소는 강간센터"

유엔인권조 보고서...관련자 처벌해야

"남이 내 여여편 누이동생이 내 처첩(妻妾)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대방광불보살경>

13일 유엔 인권소위에 제출된 일본군대위안부에 관한 <맥두걸 보고서>는 군대위안부는 '노예'로, 군대위안소는 '강간센터'(Rape Center)로 규정,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이 범죄행위를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물론 그동안 거의 논의

되지 않던 태평양 전쟁 당시 군대위안소 운영에 관여한 구 일본군 사병 및 장교의 체포 기소까지 강도높게 언급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새롭게 하고 있다.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법적 배상책임이 소멸했다는 일본측 논리에 대해 보고서는 "협정 체결 시점에는 일본의 직접적 책임이 은폐돼 있었으므로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협정을 국가간 재산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 배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재경 기자

시민단체 '의회발전 시민봉사단' 발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낱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회발전 시민봉사단' (대표 손봉호)이 24일 발족, 활동을 개시했다. 대졸이상 학력의 실업자 가운데 선발된 1백여명의 봉사단원들은 의회가 움직이는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직접 감시에 나서는 리얼타임(동시시대) 모니터 활동을 국내 처음으로 벌이게 된다. 전체 국회의원이 2백99명이라 단원 한 명이 3명 정도의 의

'실업극복 국민 대바자'

롯데백화점서 9월3일까지

실업극복국민운동은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10일 동안 롯데백화점 서울지점 5개 점포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 대바자' 행사를 연다. 8월26일 오전 10시30분 롯데점포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는 일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강원도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등 국민운동의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추준석 중소기업

김재경 기자

김재경 기자

불/자/정/보 (사찰)

사찰부지안내

-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목방리)
-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장원시 25분:마산시
-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합. 현재 5분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 32-8322~4
 <자택> 051) 335-6392
 011) 881-4863
 012) 1568-6392
금화 공인중개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사찰 분납 운영하실 분

◇ 위치 : 경북 예천
 ◇ 부지 : 700평(100% 사용 가능)
 ◇ 발달 : 23평 / 묘사: 37평 이상
 ◇ 가액 : 6천 5백만원(분납가능)
 ◇ 상담 : 스님 직접 (0584)53-7262

◇ 위치 : 경북 김천에서 10분 거리
 ◇ 부지 : 3,000평 농장겸용 사찰
 ◇ 발달 : 30평 / 묘사: 50평
 ◇ 가액 : 전세 5,000만원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해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범사 합장
 상담전화: 02)512-4447 / 012)1648-6334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며 일반인, 보살, 유숙인 대리상담 및 투기성이 없는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사찰운영하실분

- ◆ 위치 : 강원도 홍천(시 승격 준비작업 완료) 2,000년대 서울서 1시간 거리
- ◆ 부지 : 대지 198평, 임야 125평, 전 1,159평(승-1,482평)
- ◆ 발달 : 13평(고전 한옥기와) 등기 필 / 묘사 : 28평(고전 한옥기와) 등기 필
- ◆ 부속건물 : 17평(창고, 외부사위장, 외부화장실) ◆ 가액 : 3억(절충가능)
- ◆ 특 징 : 수려한 산세(천하절경 명산의 기암괴석 정경자연계곡)와 사계절 1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과, 넓은 주차장 지하 80M 일반을 굴착하여 나오는 엄청난 양의 암반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700m(사찰 전용도로)거리인 편리한 교통환경, 산속에 소재한 기도 도량으로 대덕스님계 저명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 현지 답사 환영 ※
 상담 : 홍천 0366)33-217 / 011)361-3260 주지 혜선 스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주차시설완비)
 ◇ 발달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층분(낙차),
 - 후불신중명화 정기월세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 즉시 바로 입주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월 40만원
 016)519-9551

사찰부지안내 (타용도 가능)

◇ 위치 : 경북 상주군 외서면
 ◇ 평수 : 45만평(분할판매 가능)
 ◇ 가격 : 평당 2,300원
 * 감·방·갯·표고버섯 등유실수 있음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산-화정지구
 ◇ 건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 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무(無), 시설비 - 1천 3백만원)
 0344)979-0212
 011)667-0212

포교원 안내

- ◆ 위치 : 부산 최고 요지
- ◆ 평수 : 50평
- ◆ 발달 : 사무실, 공양실, 방3개, 창고
- ◆ 보증금 : 1,000만원에 월 60만원
- ◆ 시설 A급 : 신용카드 A급 40개

051)441-6773
 011)825-166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범천동
 ◇ 평수 : 약 1000평, 국유지
 ◇ 발달 : 27평, 스테이트 건물
 ◇ 묘사 : 1동(스테인드)
 ◇ 삼성각 : 기와 ◇ 가격 : 2억 3천
 ◆ 특징 : 송림속의 사찰로서 부산 오륙도 앞바다가 훤히 내다보이고 서면거리가 5-10분, 갑포동 10분, 부산 중심가
 051)644-6936/017)569-5540

포교원 안내

- 광명시 포교원(3층 건물)
- 평수 : 35평 - 가격 : 전세 5천만

◆ 사찰 매매

- 산적 : 550평
- 대웅전, 산신각, 묘사채 3, 종각, 탑
- 매가 : 2억

011)753-0768